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9월 27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간청하는 기도 >

누가복음 11:5-8 / 새찬송가 382(통일 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 관계가 있으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있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눅11:11-13). 그런데 이 관계로 인한 응답을 뛰어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간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와 ‘손님 대접할 떡’을 구하는 친구에게 ‘친구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요구를 들어준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눅11:8). 이는 간청하는 기도가 관계를 뛰어넘음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거절당했음에도 ‘간청’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나 누가복음 8장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모두 ‘간청함’을 통한 응답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17세 청년 조용기도 폐병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았으나 한 자매가 건네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믿고 ‘간청’하여 치유를 체험하였습니다.

2.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간청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떠나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이 있어도 ‘간청’하는 기도가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잠8:17). ‘간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며 생동하는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간청’이란 항상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주제이며 밤낮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은 시간의 중심입니다(눅18:7). 간청하기에 기도시간을 늘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간청’은 ‘간청’하는 기도시간을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며 온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날 기회를 기다리게 합니다(시42:2).

‘간청’한다고 하면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고통의 현실 안으로 미래의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미래가 침투해들어오니 절망의 슬픔 속에 미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1:24).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현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고통이지만 미래의 승리의 응답이 현재로 침투해 들어온 기쁨의 기도 즉 ‘간청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눅22:42-44),(히12:2).

우리의 미래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것입니다(렘29:11). 이런 희망과 기쁨이 충만한 기도가 바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